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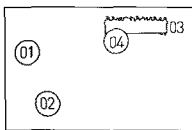
# 뿌리 깊은 나무에 맺힌 열매, 서울특별시의회 의료봉사단

법무부 주최 '제3의 세계인의 날' 에 대통령 표창 수상

지난 5월 20일 법무부가 주최한 '제3회 세계인의 날' 에 서울특별시의회 의료봉사단이 이민자 사회통합을 통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영예로운 수상의 영광을 누린 서울특별시의회 의료봉사단을 만나본다. 글 최용균 투움및자료제공 서울특별시의회

## 역사의 서울특별시의회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25개 구의사회, 32개 특별분회), 회원 수가 제일 많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올해로 설립 95주년을 맞이하는 오랜 역사의 단체이다. 1915년 일제 치하 속에서 국내 유일의 의사단체로 등장한 한성의사회가 서울특별시의회사의 전신이다. 1912년 일본인 의사들이 조직한 경성의사회에 대항하기 위한 항일구국 결사조직체 성격을 띠고 있었던 한성의사회의 정신이 오늘날에는 의사사회의 통합과 국가사회 통합이라는 통합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사회 통합에 있어서는 2003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의회 의료봉사단이 첨병이 되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등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며 서울특별시의회만의 국가 사회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01 제255차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2009. 4. 12)  
02 제296차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2010. 4. 25)  
03·04 중국 우루무치, 트루판, 카시카르 지역에서 펼쳐진 해외의료봉사

## 7년 동안 4만여 명 무료진료한 의료봉사단

2003년 7월 설립된 서울특별시의회 의료봉사단은 지난 7년 동안 약 300회에 걸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 및 노약자, 노숙자 등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해왔다. 약 4만여 명이 내방하여 5만 5천 건의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1만 5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협력단체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금천구노인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할 때만 하더라도 홍보의 미비로 방문자 수가 적었으며, 제대로 된 의료장비도 부족했으나 지금은 넓고 쾌적한 서울시의회관 강당에서 치과 의료기기 및 진단검사 의학 장비, 영상의학과 장비 등을 갖추어 준종합병원급의 시설을 갖추고 매주 20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미용 봉사 활동, 무료 법률상담 등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의료봉사단이 외국인 노동자를 무료진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들만큼 의료혜택이 절실한 소외계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료봉사단의 진료 여건이 개선된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숙자,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도 무료진료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의료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봉사단, 2009 아시아 평화 의료대장정

일정 : 2009. 10. 12~10. 18 장소 : 중국(우루무치·트루판·카시카르)



## 의료봉사라는 하나 된 마음으로 뭉친 의료봉사단

봉사에는 불가피한 희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자원 봉사자들은 시간과 노력의 희생, 협력단체들은 의약품 제공, 의료기 기 및 의료소모품 지원에 따른 경제적인 희생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들은 봉사에 따른 희생의 이까움보다 진료 후 환한 미소를 짓는 방문자의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서 오는 기쁨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의료봉사자의 하나 된 마음' 을 갖고 있어 기꺼이 희생에 나선다. 하지만 의료봉사단의 손길을 찾는 방문자 수가 점차 늘고 있어 의약품, 검사시약 및 기타 의료소모품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한다.

정신건강도 함께 다독이는 의료봉사단으로의 성장 비록 의료봉사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포부는 확실하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2차 질병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의 목표이다. 지금까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앞으로는 질병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의료봉사단과 연계된 병원의 수를 늘려 방문자들이 조금 더 정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또 다른 포부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외계층에게 의료혜택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건강까지 다독여주는 의료봉사단이 되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자선음악회, 자선바자회, 명절행사 등 앞두고 있는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다 보면 어느새 인가 정신건강도 함께 다독이는 의료봉사단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뿌리 깊은 나무가 더 많은 가지를 뻗어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95년이라는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기에 그들의 의료봉사단이 어느 단체보다 크고 의미있는 열매를 맺으리라. 6

## interview



김종홍  
의료봉사단장

제2대 단장으로 취임한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의료봉사단의 무료진료 사업은 충분히 활성화 되어 있지만, 의약품 수급 및 후원금 모금 등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무료진료 사업, 다른 단체와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단체 및 개인의 후원금 모금과 더불어 제약회사의 의약품 후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의료봉사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희생에 대한 생각은?  
봉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세계 있어 의료봉사는 희생이 아니라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 속한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이 같은 생각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료봉사단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마음은?  
의료봉사단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봉사단을 운영함에 있어 대표이사, 단장, 봉사단원, 자원봉사자까지 모두가 의료봉사활동에 대한 마음가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무료진료 사업도 이루어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료봉사단에 대한 바람은?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사업은 완숙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노숙자 및 노약자,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진료 사업은 아직까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찾아 무료로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